3. 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최근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컨텐츠 제공 기업(CP)들로 인해 트래픽의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망을 확충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온전히 통신사의 역할입니다. 전체 트래픽 중 67.5%를 차지해 국내 네트워크 서비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해외 CP들이 내는 망 이용료는 국내 CP들에 비해 턱없이 적거나 없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최근 이슈인 ‘넷플릭스법’ 개정안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컨텐츠 제공 기업들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의 부과’ 라는 조항인데 저는 이 조항의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서비스 품질 유지’라는 조항이 저에게 모호한 느낌입니다. 통신사에서 해외 CP들에게 받기에 무리가 있는 비용까지 법으로 받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통신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국내외 상관없이 과한 망 이용료를 받아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CP들이 이 조항을 못마땅해 한다면 국민들의 월 컨텐츠 이용료가 오를 것이라 예측합니다. 해외 CP들의 망 사용료를 올린 만큼의 돈은 국민들의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현재 국내 CP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와 해외 CP들의 망 사용료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2016년 페이스북은 KT에 망 사용료를 연 150억 원을 지불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네이버는 730억이 넘게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이 망 사용료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해외 CP들이 적은 비용을 낸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국내 CP들이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해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기존에 KT의 캐시서버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하던 것을 갑자기 해외망으로 통하도록 바꿨던 일도 국내 CP들이 많은 비용을 통신사에 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외 CP들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주는 것이 오히려 통신사에게 과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1000)